지상백고좌

조계종 원로의원 ·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두산 일면 대종사**

“불자라면 불살생·자비를 마음에 새겨야”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春分)에 불암산 불암사(佛巖寺)를 찾았다.

봄기운이 완연해서 불암사 경내의 수목(樹木)들에는 새싹이 돋고 있었다. 이제 머지않아 새싹은 자라서 꽃을 피울 것이다. 신록(新綠)이 돋아서 녹음(綠陰)이 우거지고, 단풍이 들어서 조락(凋落) 끝에 나목(裸木)이 되는 사계의 법칙을 관장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해님의 얼굴(日面)이리라.

약속 시간에 맞춰 종무소를 찾으니 두산 일면 대종사가 필자를 반겼다. 일면 스님은 자신의 주석처로 필자를 안내했다. 주석처 앞에서 왼쪽을 올려다보니 기암(奇巖)이 서 있다. 아마도 산 이름도, 사찰 이름도 ‘부처님 바위’를 기린 데서 연유한 듯싶었다.

“새해 봄을 맞아서 불자들에게 희망을 덕담을 들려 달라”고 하자 일면 스님이 손으로 염주 알을 굴리면서 입을 뗐다.

“갑진년(甲辰年)은 청룡의 해이니만큼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 용이 승천하는 기운이 깃들어

불살생, 생명 존엄성 자각하는 가르침

생명을 업신여기지 않고 귀하게 대해야

자비, 상대의 아픔 함께 아파하는 마음

타인 생명 소중히 여기는 곳이 ‘불국토’



두산 일면 대종사는… 1959년 해인사에서 명허(明虛)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입산했으며, 1964년 사미계를, 1967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1968년 해인사승가대학 대교과 졸업, 1979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승가학과 졸업, 2010년 태국 캘리포니아 탐마까야 불교대학교 불교학 명예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운허(耘虛) 스님에게 입실 건당해 두산(斗山)이라는 법호를 받았다. 1983년 수락산 흥국사 주지, 1996년 불암산 불암사 주지, 2001년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2005년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초대교구장 등을 역임했다. 9 · 10 · 11 · 12 · 13대 중앙종회 5선 의원을 지내며 중앙종회 사무처장과 수석부의장을 맡아 활발한 입법 활동을 했으며, 조계종 포교부장, 사회부장, 원로회의 사무처장을 거쳐 교육원장을 역임하면 도제 양성 교육의 기틀을 다졌고, 호계원장을 역임하면서 종단 사정기관의 기강을 확고히 했다. 광동학원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명문 사학으로 육성 발전시켰으며, 동국대학교 38대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교육 불사에 진력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간 이식수술’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후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을 맡아서 장기기증, 조혈모세포 모집, 환자 치료비 지원, 자살예방센터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다. 스님은 사회활동 경력을 인정받아 대한적십자 박애장 금장, 대원상 대상, 대한불교조계종 제22회 포교대상 공로상,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 만해대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원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시는 일마다 잘 되길 기원합니다. 복은 지은 업(業)을 받는 것이니 자비희사(慈悲喜捨)의 사무량심(四無量心)을 실천하길 바랍니다. 자무량심과 비무량심을 실천하려면 어떤 경우에도 성내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려는 마음가짐을 지녀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누리는 희무량심을 지니게 되고, 나아가서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사무량심을 지니게 됩니다. 욕심이 과할수록 행복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면 스님은 연기법을 알고, 남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깨우쳐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남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이치를 몸소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연기법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 사회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행의 짐을 함께 짊어질 때 행복의 복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증일아함경〉에 이르길, ‘베풂은 중생을 위한 복의 그릇이요, 참된 진리에 이르는 길이니, 누구라도 보시의 공덕을 생각하거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내라. 베풂은 널리 평등하게 골고루 하되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아야만 베푸는 마음속에서 나를 만나 구제받는 인연을 맺으리라’고 했습니다. 베풀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불보살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일면 스님은 〈불설죄복보은경〉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육바라밀 실천을 강조하기도 했다. 부유함은 보시의 공덕에서 비롯되고, 신체의 건강함은 지계의 공덕에서 비롯되고, 용모의 준수함은 인욕의 공덕에서 비롯되고, 노동의 근면함은 정진의 공덕에서 비롯되고, 언행의 청정함은 선정의 공덕에서 비롯되고, 사고의 영민함은 지혜의 공덕에서 비롯된다는 게 스님의 설명이다.

일면 스님이 경어를 쓰는 이유

스님은 버릇인지 말하는 내내 경어를 썼다. “말씀을 편히 하시라”는 필자의 말에 스님은 출가인연에 대해 들려줬다.

일면 스님은 1956년에 출가했다. 당시 사라호 태풍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태풍이 휩쓸고 간 뒤 마을 사람들은 무너진 토담을 보수하느라 분주했다. 그러던 어느 날 탁발승이 일면 스님의 속가를 방문했다. 탁발승은 일면 스님을 유심히 쳐다보다가 말했다.

“이 놈은 법기(法器)의 종자인 걸.”

일면 스님은 탁발승에게 맹랑하게 물었다. “법기의 종자라는 게 뭡니까?”

“중 될 놈이라는 말이다.”

그날 저녁 일면 스님은 탁발승의 뒤를 쫓아서 포항 정국사로 갔다. 탁발승은 정국사에 일면 스님을 데리고 간 뒤 다시 만행의 길을 떠났다. 정국사는 작은 인법당과 산신각뿐이어서 대중도 단출했다. 사찰에는 우물이 없어서 새벽마다 일면 스님은 물지게를 져야 했다. 사찰의 진입로는 경사가 급해서 곧잘 넘어져 무릎이 까지곤 했다. 나무 땔감을 해오는 것도, 때는 것도 모두 스님의 몫이었다. 그렇게 3년을 보낸 뒤 스님은 경전 공부가 하고 싶었던 터라 강원이 있는 해인사를 찾았다. 어린 나이여서 해인사 사중 스님들은 일면 스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1주일 동안 사정을 한 끝에 일면 스님은 입산을 할 수 있었다.

일면 스님은 어린 나이인데도 해인(海印)이라는 사찰 이름이 의미심장하게 여겨졌다. 썰물이 빠진 만큼 밀물이 다시 와서 채우는 바다. ‘출렁이다가도 잠잠해지는 바닷물에 어떻게 글자를 새길 것인가’하는 자신만의 화두가 생겼던 것이다.

행자 시절, 일면 스님이 가장 흠모한 스님은 지월 스님이었다. 지월 스님은 소나기가 쏟아져도 뛰어다니지 않는 인욕보살이었다. 온화하고 인자한 성정의 지월 스님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존댓말을 했다. 일면 스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경어를 쓰는 이유도 지월 스님에게서 배운 것이다.

2000년 간이식 수술 받고 제2의 삶 살아

이식 공여자 20대 청년은 나만의 선지식

‘선재영가’로 부르며 어디서든 왕생 발원

“내 안엔 수많은 기억들 함께 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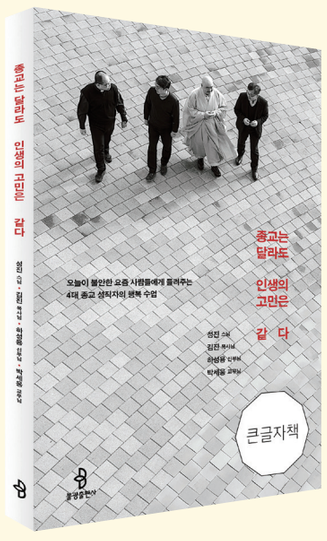
일면 스님의 은사는 조계종에서 엄하기로 유명한 명허 스님. 스님이 명허 스님을 자청해서 모신 까닭은 제대로 중노릇을 하고 싶어서였다. 명허 스님은 불암사로 출가해 풍곡 신원 화상을 은사로 모시고 득도했으며, 금강산 마하연, 덕숭산 정혜사, 부산 범어사, 선암사, 해인사, 대흥사 선원에서 수행했다.

평생 화두 참구에만 몰두했던 명허 스님은 호랑이 같은 기상으로 후학에게 시주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길 것을 강조했다. 일면 스님은 장을 보러갔다가 사탕을 사먹은 것이 들통이 나서 은사스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참회의 삼천 배를 올려야 했다. 엄한 스님 밑에서 중노릇을 배운 까닭에 일면 스님은 하심(下心)을 몸소 체득할 수 있었다.

13면에 계속

훨씬 커진 활자로 누리는 선명하고, 행복한 독서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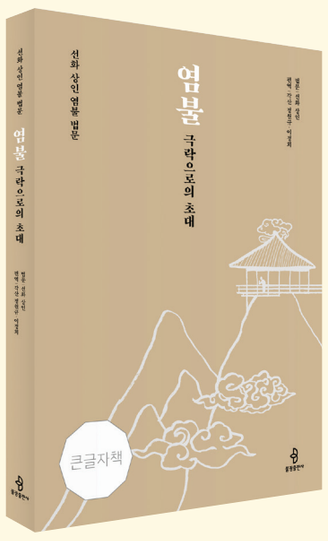
이제 “큰글자책”으로 불광출판사의 대표 서적들을 만나보세요!



4대 종교 성직자가 들려주는 행복 수업

종교는 달라도 인생의 고민은 같다

성진 · 김진 · 하성용 · 박세웅 지음 | 26,000원



말 한마디 적게 하고, 염불 한 번 더 하라!

염불, 극락으로의 초대

선화 상인 법문 | 각산 정원규, 이정희 옮김 | 28,000원



흔들림 없이 오늘은 사는 지혜

아주 오래된 시에서 찾아낸 삶의 해답

원철 지음 | 2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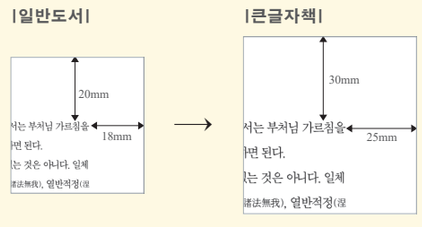
큰글자책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일반 도서보다30% 이상 커진 더 선명한 활자

|일반도서| 불광출판사 큰글자책

|큰글자책| 불광출판사 큰글자책

판형과 여백을 넓게 설계해 개방감 넘치는 시원한 시각



오래 사랑받는 불광출판사의 책 총 51종 큰글자책 출간

불광출판사의 큰글자책 전체 목록을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비춰주세요.

• 불광출판사의 큰글자책은 계속 나옵니다.
• 불광출판사의 큰글자책은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